

野史的 정치비화에 편중된 왜곡성

비판보다 폭로 앞선 시사종합지

李範洙

외국어대 강사 · 신문학

원론적인 잡지의 기획과 편집 방향은 잡지라는 매체가 갖는 고유의 속성이 살려지는 쪽이다. 즉 신문의 지면제한 속성이나 방송의 일회성 한계를 보완하되 독자 개개인이 갖는 나름대로의 취향을 창조적으로 계발하여 그것을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소위 시사종합지를 표방하고 있는 월간지들은 그 내용과 체제 양면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선동적 표현 일삼는 기사스타일

첫째, 선정적 선동적 표현을 많이 쓰는 기사 스타일이다. 표제의 서두부터 '폭로...' '비화 시리즈...' '~의 실체' '~의 전말' '폭발 직전...' '추적...' '집중추적...' '사건추적...' '△△△드라마' '밀착취재...' '심층취재...' '집중해부...' '집중분석...' '심층분석...'이라는 식으로 뽑아 독자들의 구미를 잔뜩 당겨 놓고서는, '~인가' '수 있나' '있는가' '좋은가'라는 등 종결어미를 의구형으로 하여 사실보다 과장된 반어적 효과를 노리고 있거나, '해야 할' '~해야' '~이다' '~하라' '~한다'는 식의 일방적 명령조, 혹은 일고의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듯이 '없다' '아니다' '아니었다' '된다' '안 된다' '못 된다'는 식이거나, 아니면 긴장의 정도를 높이는 '시급' '~의 현재적 의미' 등등과 같은 형태로 끝을 맺고 있다. 아예 자기들이 잡지재판(?)을 먼저 해버리고는 독자들더러 무조건 자기 판단에 따르라는 조다. 게다가 서술방식도 알맹이없는 심증적인 내용을 외피 넓히기 방식으로 유추하면서 엇가락 늘이듯 하고 있어 전혀 '심층적'이거

나 '집중적'이지 않거나 '분석' '해부'는 커녕 거북 등에 청진기 대는 투다.

또내기 약장수 식의 손님끌기 장광설은 독자의 입만 걸게 할 뿐 잡지의 생명을 단축시킨다. 비중있는 대상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아쉬운만큼 잡지경영자는 그 판매부수가 늘지 않는 이유를 이런 데서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빈약한 주제 의식 하에서 소재를 경쟁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국외 사건보다 나라 안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것도 야사류의 秘話(특히 정치적인)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종합지라기보다는 '정치 야담집' 같은 인상을 준다.

장기적인 심층기획 드물어

이른바 4대 종합지라고 할 수 있는 '신동아' '월간 경향' '월간 조선' '월간 중앙' 등의 금년 1월호 별책부록이 북한 일색인 것만 봐도 그렇다. '원 자료로 본 북한 1945~1988' '북한을 움직이는 100인' '사진으로 보는 남북교류 20년' '오늘의 북한' 등이 그 제목인데, 이는 민족적 현안문제가 통일이니만치 '북한 바로 알기' 차원의 기획의도로 볼 수도 있겠으나, 발간일자가 비슷한 4대지가 동시에 이를 취급한다는 것은 뒤질세라 벌이는 무모한 소재경쟁으로밖에 안 보인다. 국내 기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터에 환경오염문제나 교육문제 그리고 노동운동 등과 같은 절박한 우리네 현실문제들에는 왜지면 할애를 인색하게 할까.

세번째는 편집과 기획이 즉물적·즉시적



이라는 점이다. 하나같이 유신시대 및 5공 비리(그중에서도 특히 여자문제와 돈문제) 추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기사유형이나 접근방식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래서 때로는 이남 출신 유명인사의 본적이 이북으로 둔갑하기도 하고, 무장공비토벌 사진이 광주민중항쟁 사진으로 올려지기도 한다. 장기적 기획을 세워 자료 및 사실 확인에 충실하여 진실을 추적하는 심층분석 태도를 항상 고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기획 시리즈라고는 지방 풍물기행이나 특정 부류의 인물 집견 정도에 그치고 있다.

다양한 독자취향 창조적으로 계발해야

이상과 같은 최근 국내 시사종합지 발행 관행은 차츰 독자들의 관심과 사고를 어느 일 방향으로 몰고 가서 그렇지 않아도 야기되고 있는 현대인의 '확인도 거치지 않는 성급한 결론 도출 방식'(instant haste conclusion)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되기도 한다. 폭로보다는 비판에 초점을 맞추어 독자들이

정세판단이나 분석을 제대로 하도록 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잡지 본래의 기능수행도 뒷전에 숨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잡지편집자는 잡지가 악덕 상업주의에 빠져 자극적인 표현을 써서 독자를 흥분시키거나, 경쟁적 소재를 선정적으로 다루면서 마감 시간에 쫓긴 나머지 즉흥적인 기획에 머물러 독자들로 하여금 헛물만 켜게 한다든지, 사건을 실제보다 흥미롭고 중대한 것처럼 윤색시키는 등 무모하고 무책임한 편집을 자행할 때 이미 그 잡지는 정보전달 매체가 아닌 싸구려 황색지(yellow paper)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요구에 부응하는 본격적 기획이나 기사 스타일이 더욱 어렵다. 독자들이 다양한만치 심층취재를 전제로 한 문화장르별 발행도 고려해 볼만한 일이다.

기계기술 프레스기술

讀者와 함께 15年
最頂上의 綜合機械專門誌로
성장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안목을 바탕으로 선진 기술입국을 지향하며 비약의 발돋움을 계속 하려는 우리 기계업계의 굳건한 발판이 되기 위해 더욱더 정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주식회사 기술정보
本社: 서울·中區 乙支路3街5-6(월보B/D5層)
TEL: (02)276-1201 ~ 5, 272-5835 FAX: 272-5836

실내장식

다양한 실내장식을 사진과
해설로 게재함으로써 실내공간
창조와 생활환경 추구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18-21
☎ 266-0509, 277-1889
산업도서출판공사

印刷經營 · 技術管理를 위한 綜合專門誌

印刷文化

인쇄관련 제반 사항과 인쇄경영
및 기술관리 정보를 제공하여
인쇄계의 발전에 기여함.

월간인쇄문화사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343-1 흥원빌딩
전화: 273-5931 ~ 2

月刊 **型技術**

- 프레스형, 사출형, 다이캐스팅형 등의 설계 및 가공기술
- 고무형, 유리형, 요업형... 등 신소재에 의한 설계 및 가공기술
- 전자, 전기, 기계, 자동차 등의 실무 및 최신기술소재
- 각종형의 제작에 전용기 및 가공기의 응용설계 및 운용기술
- 정밀계측 및 측정장비의 특징과 응용사례

株式會社 **尖端**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4579번지(첨단빌딩)
TEL: 846-4151 ~ 2, 844-3358 ~ 9, 1451, 4677
FAX: 844-8177